주간 한우정보

제3호 2021. 6. 7.

국내 소식

- 지자체의 한우산업 지원정책 최신동향
- 국립수산과학원, 바다풀로 소 메탄가스 저감 사료 연구

해외 소식

- 스위스기업, 세계 최초로 소 트림 탄소배출권 개발
- 미국 텍사스, 인조 단백질에‘소고기’표기 금지법
- 일본, 품목단체 중심으로 농축산물 수출 확대

전 국 한 우 협 회
한 우 정 책 연 구 소

지자체의 한우산업 지원정책 최신동향

□ 경기도, '경축순환농업'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농경지 주변에 마을형 퇴비 자원화 시설을 확충

○ 경축순환농업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경종작물 비료 등으로 이용함으로써 토양과 물 오염을 낮추고,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환경보호 농법

○ 마을형 퇴비 자원화 시설은 소 사육 농가에서 생산한 퇴비를 부숙하고, 이를 인근 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

-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농축산업이 일거양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

○ 경기도는 오는 2025년까지 대규모 농경지 주변을 중심으로 '마을형 퇴비 자원화 시설'을 28개소 세우고, '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' 14곳을 설치할 예정

- 가축분뇨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에너지로 만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8곳과 고체 연료화 시설 5곳도 확충할 예정

○ 퇴비의 운반, 살포, 경운 등 농가가 보다 편리하게 해당 퇴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전문조직을 확대하는데도 주력

- 아울러, 가축분뇨이력관리제와 악취 없는 고형축분비료 개발과 축분퇴비 이용 증진을 위한 축종별 가축분뇨 관리체계 개편 등도 추진

○ 경기도는 마을형 퇴비 자원화 시설 설치를 희망하거나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활동할 민간사업자를 7월 10일까지 모집하고 있음

- 대상은 농축협 생산자단체, 조사료 경영체 등 영농조합법인

자료 : 경기도축산산림국, 경인일보(21.5.27)

□ 강원도농업기술원, 인공지능(AI)·빅데이터 기반 한우 성장 예측모델 개발 추진

○ 이를 위해 자동 체중 측정 모델과 최적 사양조건 모델 구축, 데이터 수집·표준화 작업에 착수

- 먼저 한우농가 저울에 3D카메라를 달고 매주 체중과 몸길이, 높이 등을 측정한 뒤 생체데이터를 시각화

- 이를 통해 수집한 한우의 생체 이미지를 분석해 육량 및 육질 극대화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인공지능(AI)이 지원하는 시스템과 성장단계별 최적 사육환경 추천 서비스를 제공

○ 육류유통 빅 데이터와 통합해 가축 출하시기를 정하는 시스템도 출시 계획

자료 : 강원도농업기술원, 연합뉴스(21.5.27)

□ 강릉시, 한우 명품화 추진을 위해,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사육하는 우량암소를 농가에 분양

○ 4일 강릉가축경매시장에서, 총 30두의 분양계획 중 1차로 10두를 후계축산인 5농가에 분양

자료 : 아시아경제(21.6.4)

□ 충남 축산기술연구소, 한우 개량 극대화를 위한 '한우 암소 유전체 유전능력 평가분석' 실시

○ 분석정보를 활용하면 우량 송아지 선발, 암소 유전능력에 맞는 개량방향 설정과 씨수소 정액 선정을 통해 혈통과 능력이 우수한 자손 생산이 가능

- 소요 비용은 개체당 약 10만원이며, 각 시군 및 축협이 신청창구

자료 : 충청일보(21.6.4)

국립수산과학원, 바다풀로 소 메탄가스 저감 사료 연구

□ **국립수산과학원은, 4월부터 괭생이모자반을 이용해 한우의 메탄가스 저감효과 연구에 착수**

○ 국립수산과학원은, 한우 사료 첨가제로 개발을 위해, 축산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괭생이모자반의 영양성분 분석, 대체 원료로의 제조기술 개발 및 공급효과, 대체 원료 활용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조사 등의 기반연구를 수행

○ 아울러, 지금까지 수입산 미역분말에 의존해오고 있던 전복 배합사료 원료를 괭생이모자반 분말로 대체하는 어린 전복용 먹이 개발도 추진

○ 괭생이모자반은 매년 1월에서 5월까지 제주도와 서·남해안으로 대량 유입되어 양식시설 훼손 및 양식생물 품질저하 등 수산피해를 발생시키고, 해안가 오염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

- 괭생이모자반은 중국 동부 연안(산둥반도 및 발해만)에서 발생해 해류와 바람에 의해 제주 연안에 대량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

□ **최근 미국과 호주에서는 축우에 해조류(홍조류)를 사료에 첨가해 급여한 결과, 온실가스의 주요 성분인 메탄가스가 80% 정도 감소됐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음**

○ 해조류의 일종인 바다고리풀(홍조류**)을 소의 사료에 첨가함으로써 트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80%를 저감하였다는 연구

- 홍조류 : 엽록소 외에 홍조소와 남조소를 함유하고 있어 붉은색 또는 자줏빛을 띤 해조(海藻)

□ **긍정적 연구결과가 나오면, 괭생이모자반 해양오염 문제 해결은 물론,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우산업 발전도 기대**

자료 : 국립수산과학원 보도자료 (21.5.4)

스위스기업, 세계 최초로 소 트림 탄소배출권 개발

□ **스위스와 영국에서 활동중인 농업기술기업 무트랄(Mootral)은, 4월 14일 세계 최초로 소의 트림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삭감에 바탕을 둔, 탄소배출권(Carbon credits)을 발표**

○ 이는 '무트랄'이 개발한 천연 사료 첨가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우유와 소고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

- 천연 사료 첨가제가 소의 소화기관에서 방출되는 메탄가스량을 최대 38% 삭감하고, 소고기 생산효율을 높이는 효과도 확인

○ 사료 첨가제인 무트랄 루미넌트(Mootral Ruminant)는 대형 연구기관 '님·바이오텍(Neem Biotech)'이 오랜 기간 개발한 연구성과이며, 이 기술이 스타트업기업 '무트랄'의 탄생으로 이어짐

- '무트랄'을 '소의 테슬라'로 평가하는 언론매체도 있으며, 뉴욕타임스, 블룸버그, 런던타임스 등에서도 소개한 바 있음

□ **'무트랄'은 소의 메탄가스 배출량 삭감으로 생성된 탄소배출권(Carbon credits)을 판매한 최초의 기업**

○ '무트랄'사의 탄소배출권(Carbon credits)은, 국제항공 탄소상쇄·감축제도(CORSIA)등 세계적인 탄소삭감제도 일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았음

- 전 세계 기업이 소 탄소배출권(Cow Credits)을 구입하여 배출량을 상쇄시킬 수 있음

○ 무트랄 루미넌트(Mootral Ruminant)는 영국 소 농장에서 사용 중이며, 탄소배출권 매도로 사료첨가제 비용 일부를 상쇄, 향후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무료로 사료첨가제 이용이 가능

- 영국 런던ICE 선물거래소 탄소배출권 톤당 가격은, 작년 말 30유로 초반에서 5월 4일 48.61유로(약 6만 6천원)로 5할 정도 상승

자료 : CNN비즈니스(21.5.18)

미국 텍사스, 인조 단백질에 '소고기' 표기 금지법

□ **미국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텍사스 주의회는, 5월 10일, 인조 단백질 제품의 라벨에서 '고기'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**

○ '텍사스 육류 및 모방 식품법(Texas Meat and Imitation Food Act)' 안은, 동물에서 도축된 고기를 포함하지 않는, 식물, 세포, 곤충을 기반으로 한 인조 단백질이 제품 라벨에 '고기', '소고기', '돼지고기' 또는 '가금'과 같은 용어 표기를 할 수 없도록 함

○ 이 법안은 텍사스 소 사육협회, 텍사스 가금류 협회, 텍사스 돼지고기 생산자 협회 및 다른 축산회사들의 지원을 받음

□ **법안은 '고기', '소고기', '돼지고기', '닭고기'와 같은 용어를 "합성 또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파생되지 않은, 이전에 살아 있는 소, 돼지, 닭 도체의 식용 부분"으로 정의**

○ '고기'라는 공식정의가 충족되지 않는 한, 유사한 질감이나 맛, 조리법을 주장하기 위해 '고기', '소고기', '돼지고기', '닭고기', 또는 '변형'이라는 단어가 포장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금지

○ 이 법안으로, 도축된 동물이 아닌 곤충, 식물, 세포배양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'고기', '소고기', '돼지고기', '닭고기'라는 라벨을 사용할 수 없게 됨

- '버거'나 '소시지' 같은 다른 용어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
□ **버클리(Buckiey) 주의원은 "우리의 목표는 소비자가 무엇을 구입하는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라벨을 부착하는 것"이라고 법안의 의미를 강조**

자료 : 텍사스주의회(capitol.texas.gov), Beef Central(21.5.12)

일본, 품목단체 중심으로 농축산물 수출 확대

□ **일본정부는 28일, 수상관저에서 농축산물 수출확대 전략회의를 개최, 구체적인 전략방침을 결정**

○ 소고기, 쌀 등 품목별로 '품목단체'를 법제화하여 판로개척 및 수출 대상국 현지 시장조사 등 수출을 주도하는 역할을 부여할 방침

- 스가 수상은 "일본산품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품목마다 단체를 법률로 정하고, 올·재팬(ALL JAPAN)으로 수출을 촉진하겠다"고 표명

○ 현재는 사업자가 난립, 포장 및 품질관리 등 규격도 각각 별도여서 고비용 구조인데, 품목단체를 통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

- 품목단체는 상자나 병의 크기 등, 수출 시의 여러 가지 규격을 정하거나 일본산 농축산물 통일 브랜드화 등을 담당하게 됨

○ 또한 냉동·냉장창고 등의 물류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나 세제 우대조치를 할 계획

-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'수출촉진법' 개정도 검토

□ **일본농림수산성에 따르면, 금년 1~4월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전체 2,553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% 증가한 가운데, 화우고기 수출은 전년 대비 2.1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**

○ 1~4월 화우고기 수출은 142억엔(2,183톤)으로, 수출국은 캄보디아 40억엔, 미국 24억엔, 홍콩 21억엔 순

○ 27개의 수출 중점 품목중, 화우고기는 일본을 대표하는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, 2025년까지 1,600억엔을 수출한다는 목표

□ **스가 수상은, "농업을 지역 성장산업으로, 지방의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일체가 되어 전력을 다하겠다"고 역설**

자료 : 일본수상관저(kantei.go.jp), 일본경제신문 (21.5.28)